



북한인권정보센터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가’
종교 암흑시대, 북한



북한의 종교자유가 오는 그날을 위하여!

종교는 인류의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교를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탄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활동을 한 것이 발각될 경우,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종교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탄압 속에서도 비밀리에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어두운 방 한 칸에서 남몰래 마음 졸이며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북한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0년 5월 북한인권정보센터

목 차

1

김일성이 유일신!

- 북한의 종교단체는 대외 선전용
- 김일성이 유일신인 나라

2

종교 암흑지대, 북한

- 비밀리에 종교를 찾는 북한 주민들
- 선교사 체포에 혈안

3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

- 종교를 믿는 길은 죽음의 길
-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종교탄압

◇ 탈북자 증언 및 언론보도 내용

1 김일성이 유일신!



김일성 생일 기념 무도회

북한은 헌법 68조에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와 관련된 시설과 단체가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 시설들은 일반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위한 용도로 이용되기 보다는 대외 선전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즉,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대내적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북한의 ‘종교에 대한 이중적인 정책’을 위한 시설인 것이다.

북한은 1967년 김일성이 ‘종교는 미신’이라고 규정한 뒤 본격적인 종교 탄압을 시작하였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여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믿게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에는 기독교 등 어떤 종교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배척당할 수 밖에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다. 북한은 1980~90년대 식량난 이후 한국과 외국의 종교단체들이 본격적인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자 그들의 도움을 받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거짓 포장,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종교단체 종사자는 모두 노동당 당원

“북한은 국제적인 행사나 외교사절들이 오면 형식적인 종교건물에서 행사를 성대하게 하고 훈련된 북한 주민들을 동원합니다. 북한 주민 그 어느 누구도 노동당의 승인 없이 기독교 단체나 불교 및 천주교 단체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가 노동당이 파견한 노동당원입니다.”

조명철 전 김일성 대학 교수 증언

북한의 종교단체는 대외 선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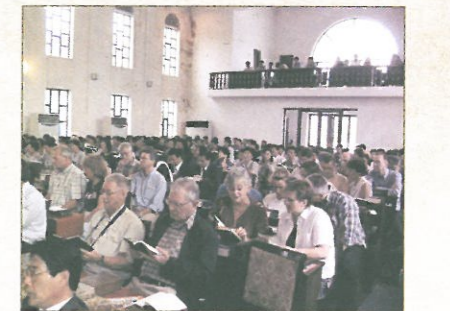
북한의 대외 선전용 종교시설



묘향산 보현사 사찰



평양시 장충성당



평양시 봉수교회

미국 국무부는 2009년 북한이 대외 선전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종교단체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의 종교 집회 장소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종교 실상을 비판하면서 북한을 9년째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였다.

2002년 7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측 보고서에는 500여개의 ‘가정 예배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은 그러한 예배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한 북한을 다녀온 국제기구 경험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종교단체는 순수한 종교단체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양시 장충성당에서 매주 미사가 집전되고 있다. 하지만 미사에 참가하는 인원이 천주교 신자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다.”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교회 활동이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하면서 설교에 정권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이 함께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처 : 2009년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종교시설을 이용한 돈벌이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축전을 계기로 평양시에는 칠골교회와 봉수교회가 세워졌다. 북한에도 종교자유가 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중략) 북한은 신자들을 급조해 100달러씩 나누어줬다. 예배가 끝나고 북한 신자들이 100달러씩 현금을 내자 외국 신자들도 대개 100달러씩 냈다. 이왕이면 교회를 이용해 돈을 벌자는 것이다.”

출처 :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김일성이 유일신인 나라

“김일성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신화 조작 등을 통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의 구원자이자 메시아로 신격화된 존재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북한의 살아있는 유일신 김일성

북한은 종교와 신을 부정하고 김일성만이 유일신이다.

북한은 1960년대 본격적으로 종교말살 정책을 실시했으며, 주민들에게 김일성을 유일한 신으로 섬길 것을 강요했다. 실제로 북한은 '유일 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른바 '김일성교'의 교리까지 갖추었다.

주민들은 숨쉬는 것조차 김일성에게 감사해야 하며 아기가 “김일성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우게 하였고, 성장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제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김일성주의를 세뇌시켰다.

이러한 주입식 세뇌 교육은 북한 주민들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여 김일성 우상화에 기여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자 김일성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이탈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이탈 현상이 김일성주의가 북한에서 사라지도록 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김일성주의는 북한의 공식 종교로 지위를 얻고 있으며, 주민들의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꿈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2 종교 암흑지대, 북한

북한은 종교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종교 활동들이 증가하자 1년에 2회 이상 반기독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교사는 악랄한 승냥이이며 종교는 사회주의를 쪼먹는 미신'이라며 종교를 믿는 주민들의 색출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2009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일부 종교 관련 해외 구호 단체들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단체의 북한 내 선교 활동은 허용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은 엄격한 감시 속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감시를 위한 정부 수행원이 동행한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9년도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 1,7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99.7% (1,756명)가 북한에서는 종교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항목	허용함	허용하지 않음	계
자유로운 종교활동	6명 (0.3%)	1,756명 (99.7%)	1,762명 (100.0%)

“김일성은 종교와 관련된 거의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대신 국가가 정한 획일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였다. 종교 활동이 존속되는 경우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거나 국가의 삼엄한 감독 하에 실시되는 경우뿐이었다.

평양에 로마 카톨릭 교회 한 곳과 개신교 교회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시설은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위신과 외화획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반 종교 교육문건
(출처 : 데일리 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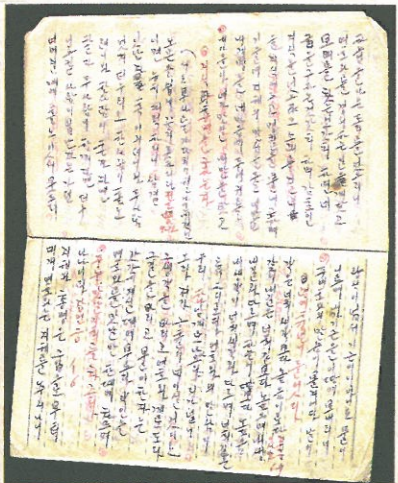
출처 : 2008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특별보고서

비밀리에 종교를 찾는 북한 주민들



지하 종교 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출처 : 한국 모퉁이들선교회)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공개적인 지하 종교 활동이 극히 일부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1%에 해당되는 탈북자가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직접 종교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종교 활동을 목격한 탈북자 비율이 4.5%로 나타나 북한내 지하종교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북한의 보위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소리 내지 않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 지하 교회에서 사용 중인 필사본 성경
(출처 : 한국 모퉁이들선교회)

- ◆ 지하 교회에서의 예배는 그 규모가 매우 작고 일반 가정 단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지하 교회가 효율적인 조직망을 통해 다른 지하 교회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 북한의 방북 불허로 지하 교회 존재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3명 이상이 모이면 위험!

“지하 교회라기보다는 비밀 신도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런 곳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대신 비밀 신도는 존재할 수 있다. 두 명이 모여 손을 합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3명 이상이 모이면 위험해진다.”

“지하 교회들이 있다. 나는 술자리에서 고위 당원이었던 친척으로부터 지하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3-5명이 예배를 하기 위해 모인다고 했다.”

출처 : 2008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특별보고서

선교사 체포에 혈안

북한 내부로 종교가 전파되는 방식

- ◆ 조선족 기독교인들의 합법적 북한친척 방문에 의한 전파
- ◆ 탈북자들이 중국 체류 후 재입북하여 전도함으로써 전파
- ◆ 재외공관, 경제인 등 합법적인 출입국자들에 의한 전파

한국인 목사 납치

북한으로의 종교 전파는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선교사 체포에 현상금까지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종교의 전파를 심각한 체제 위협요소로 인식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였고, 그 일환으로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한국인 목사들을 납치하였다.

1995년 7월 중국 연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안승운 목사가 북한으로 납치되어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00년 1월 중국 연변에서 선교를 펼치던 김동식 목사도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강제 납치되어, 2001년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북한은 내부로의 종교 유입을 막기 위해 무고한 선교사를 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안승운 목사



김동식 목사

3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

해외 종교·인권 단체들은 북한에서 지하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구타, 체포, 고문, 살해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를 통해 북한내 종교박해 실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실종, 구금, 공개처형에 처해지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에 비유하고 있다. 종교가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보듯이 종교는 인간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와 같다. 북한은 이러한 윤활유를 부정하면서 김일성을 신격화하는데 급급해 왔다.

오른쪽 표에서 보이듯이 북한은 1970년대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수감, 강제 실종의 방식으로 공포를 조장하면서 탄압하였고, 이러한 공포는 북한사회에서 종교의 그림자를 씻어내는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종교가 다시 북한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 교회를 통해 성경책을 유입하여 북한내 주변에 전파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최근 탈북자 증언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식량의 문제와 더불어 생존의 중요한 방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선전해 왔던 종교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현실에 대한 역경을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극복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탈북자들의 종교박해 주요 증언

연도	처벌이유	처벌
1976	기독교를 믿음	본인 공개처형, 가족 정치범수용소 수감
1977	기독교를 믿음	실종
1987	점을 보았음	실종
1988	기독교를 믿음	실종
1991	예배를 드림	실종
	김일성의 초상화를 떼어 내고 예배를 드림	실종
1993	성경책을 보다가 적발됨	보위부 구금이후 미상
	성경책을 중국에서 들여옴	교화소 수감
2000	성경책을 소지	실종
	성경책을 중국에서 갖고 와서 봄	교화소 5년 형기
2001	점을 보았음	교화소 수감
	중국에서 교회를 다님	보위부 구금이후 미상
2002	중국에서 성경책을 들여옴	보위부 구금이후 미상
	중국에서 교회에서 생활했음	교화소 수감
2004	십자가 목걸이를 하였음	보위부 구금이후 미상
	성경책을 소지	보위부 구금이후 미상
2005	집안에 성경책을 보관함	보위부 구금이후 미상
	중국에서 기독교를 믿음	정치범수용소 수감
2006	기독교를 믿음	보위부 장기간 구금
	기독교를 믿음	보위부 구금
	성경책이 가방에서 발견됨	교화소 수감
	성경을 전파함	화성 제 16호 정치범수용소 수감
2008	불교를 믿음	교화소 수감
	미신책을 보았음	단련대 수감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

- ◇ 정치범수용소 :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하여 마을 형태로 운영되는 통제구역. 수감자들 대부분 죄명도 모르고 정식 재판도 없이 수감되며 인권 유린이 심각
- ◇ 교화소 : 구금시설 중 죄질이 무거운 자를 수용하는 일반 교도소 형태의 감옥. 대부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하루 12시간을 노역
- ◇ 단련대 :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운영하는 구금시설. 강제노역을 시키고 구타와 고문이 심각

종교를 믿는 길은 죽음의 길

탈북자들의 증언은 지하 종교활동자에 대한 구금과 처형이 북한정권에 의해 꾸준히 자행되어 왔음을 알게 해 준다. 증언자들은 직접 피해를 받은 경험자, 피해사실 목격자, 그리고 북한에 거주할 당시 소문으로 알게 된 경우였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북한내 종교박해 수준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다고 증언했다.

종교박해 첫 번째 유형 - 공개처형

종교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교인들이 공개처형 당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공개처형은 총살, 교수형, 화형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 집행시 죄명은 종교를 믿은 죄가 아닌 간첩죄 등 다른 죄목으로 누명을 씌우기도 한다.

2009년 7월 한국의 데일리 NK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리현옥(가명)이라는 여자가 기독교를 믿고 유포한 죄로 2009년 6월 16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총살 당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1999년 10월 청진 운동장에서 기독교인 세 명이 공개처형된 바 있고, 2000년 2월 10일 함북 무산시 장마당에서 하느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리영희(가명)가 총살 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2009년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는 중국에서 기독교 단체들과 접촉하고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6년 손정남이 사형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한편, 국제오픈도어선교회는 2010년 1월, 북한이 과거에는 기독교인을 색출하면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공개처형했지만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처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개처형 현장
(출처 : CNN 05.11 보도)



리현옥(가명)의 신분증
(출처 :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처형된 손정남씨 사진

종교박해 두 번째 유형 - 정치범수용소 구금

북한에는 2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이 외부와 격리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으며, 이 중 일부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행위가 적발되면 대부분 아무도 모르게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된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감된 수형자들은 다른 수형자들보다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들의 생존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종교행위 적발자는 대부분 기독교인이다.

“2005년 1월경 함경북도에 사는 한 가정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자 남편, 아내, 딸 등 가족 모두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 당시 중국에 있던 그 집 아들은 가족의 구금 사실을 모른채 북한으로 돌아왔다가 나중에 수용소에 잡혀 들어 갔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탈북자 인터뷰)

“종교적 신념을 자백하거나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정치범’ 또는 ‘외국스파이’로 간주된다. 특히 ‘체제 전복의 위험한 세력’, ‘다른 사람을 물들일 수 있는 독소’ 같은 존재라며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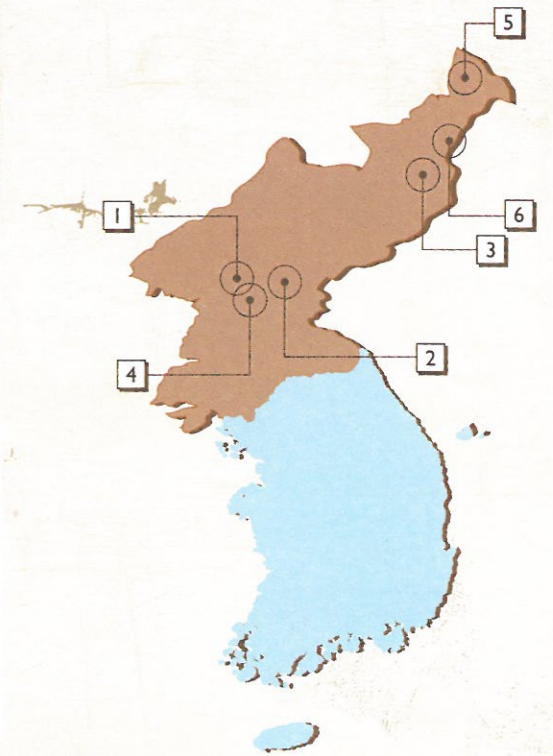
(전 북한 정치범수용소 보안 요원 증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현황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총 6개이다.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함경남도 요덕군의 15호 보위부 관리소를 제외하고도 5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정치범수용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다.

종교의 죄목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정치범수용소에 구금, 수용소내에서도 제일 더러운 일을 하고 미친 사람이라 모욕 받는 등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 14호 평안남도 개천
- 2 15호 함경남도 요덕
- 3 16호 함경북도 화성
- 4 18호 평안남도 북창
- 5 22호 함경북도 회령
- 6 25호 함경북도 청진

종교박해 세 번째 유형 - 구타, 고문

중국이나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즉시 보위부로 이송되어 장기간 구금 후, 아무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보안요원들은 중국에서 송환된 북한 주민이 종교인들과의 교류를 자인하도록 하기 위해 무자비한 고문 및 강압적 심문 기술을 사용한다.

“구금시설에서 심문받던 한 여인은 왜 중국에 갔으며 교회 또는 선교사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하루종일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으며, 움직이기만 하면 경비원이 구타를 하였다.”

중국내의 북한공작원들은 기독교인들을 열차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 체포된 사람들은 구타를 당하는 와중에도 계속 기도를 했다. 그 집단의 지도자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바로 관리소로 보내졌다.”

출처 : 2008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특별보고서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구금시설(보위부 조사실)에서 자행되는 고문 재연 장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 방식

- ◇ 양 팔을 뒤로 꺾어 지하감방 난방관에 수갑을 채워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하는 ‘비둘기 고문’
- ◇ 의자 없이 장시간 신문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신문보기 고문’
- ◇ 알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집단 뽀뽀질’
- ◇ ‘종아리 뒤쪽에 굵은 나무를 끼워 무릎 꿇고 앉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이국에서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며
저 북한땅도 그려봅니다.

가보지도 못했지만 기도해오던
저 평양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부족한 믿음이나마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그 북한땅을 밟아 볼까...?
언제...할아버지가 눈을 감으면서도
보고싶어 하던 통일의 그날을 볼까...?

정녕 그들을 외면치 않고
나의 피가 그들과 이어졌음을 명심한채
오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구원하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 어느 해외동포의 기도 중에서 -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종교탄압 -탈북자 증언 및 언론보도 내용

종교박해 탈북자 증언

(출처: 북한인권정보센터)

“2005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군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옆 호실 남자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보위원이 피해자에게 기독교를 믿은 것을 인정하고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하자 피해자는 찬송가를 불렀던 것이고, 그 날 밤 사라졌다. 당시 피해자가 비밀처형 당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2003년 강제송환되어 함경북도 ○○군 단련대에 구금되어 있을 때, 같은 호실에 있던 30대 여성을 부르는 것을 보았다. 보위부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여성의 손을 뒤로 묶어서 내보냈는데, 그 여성은 까무러치면서 “하느님, 저를 살려주세요”라며 정신을 잃었다. 처음 단련대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물렸는데 같은 호실 수감자들이 그 여자는 기독교를 믿어서 관리소로 옮겨졌다고 하였다.”

“아주머니(당시 40대, 여, 평북 ○○시 ○○동 거주) 한 분이 성경책을 집에 놔뒀다가 발각이 돼서 농장 탈곡장에서 공개총살하는 거예요. 구경가서 주위사람들에게 왜 총살하냐고 물으니까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머리, 심장, 다리 부분을 묶고 2005년 9월 달에 총살했어요.”

“2000년 함경북도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서안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서안사건’은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이는 탈북자 60명이 중국 서안에서 기독교를 공부하다가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그 중 우두머리 격에 해당하는 5명은 시범케이스로 함경북도 ○○시에서 공개처형 당했다.”

“북한에는 삼대에 이르기까지 멸족시킬 타도의 대상의 하나로 꼽는 것이 종교인들이다. 내가 있던 함남도 요덕 정치범수용소에도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미친 사람’으로 불리우는 모욕과 다른 정치범들보다 더 혹독한 강제노동을 받아야 했다. 기독교인으로 낙인 찍혀서 수용소에 끌려오면 다시 살아 나갈 수 없는데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단 한번만 부인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왜 자신들을 끔찍한 수용소생활에 맡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탈북자 강철환 정치범수용소 체험

“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으로 있었다. 정치범수용소라는 곳은 종교인들을 철저히 없애 버리는 곳이다. 많은 종교인 중에서 한 노파를 잊을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와서 다른 수감자보다 더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 70대의 고령이었던 노파는 작업 중이나 잠자리에 들어서나 열심히 기도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정치보위부원들의 눈총을 샀다. 하루는 노역에 동원된 어린아이가 옥수수를 차에 제대로 실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를 몹시 맞고 있었다. 이를 본 노파는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곧바로 정치보위원은 군화발로 그 노파를 짓밟으며 ‘이 미친년아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나’하고 소리를 질렀다. 무자비하게 맞은 노파는 그 날부터 누워 있어야 했다. 김일성 부자가 북한의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이단이다.”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 탈북자 안명철 증언

“황북도 사리원 목사의 딸이라는 여인이 자녀들과 함께 내가 있던 요덕수용소에 끌려왔다. 기독교를 몰래 전도까지 하다가 체포되어 왔다는 것이다. 아마도 목사인 아버지는 처형되고 가족은 추방되었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배지에서도 전도한 것 같다. (중략) 어느 날 새벽 아이들과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서 보니 정치보위부 측은 그 여인의 가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있었다.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다는 수용소 안의 수용소인 완전 통제구역으로 끌고 가는 중이었다.”

-탈북자 안혁 정치범수용소 체험

“나의 동료 어머니가 수용소내에서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을 목메어 죽이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날 그것을 목격한 이후로는 밤마다 무서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용소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탈북자 김혜숙 정치범수용소 체험

❁ 북한 종교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북한에서 비밀리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북한 당국에 붙잡힐 경우 가혹한 형벌과 함께 공개처형을 당하고 있다.”

(獨 일간지 『프랑크푸르트루트사우』 2000.2.22)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친척들을 보호하고자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전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과도한 노역과 기아로 인해 많은 동료 수감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에 따르면, 심지어 한 탈북자 출신의 수감자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맞아 죽었다.”

(AP통신 2005.11.22)

“북한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던 손정남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 『뉴스위크』 2007.9.9)

“북한이 종교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국경 인근지역에서 종교 활동 확산을 막기 위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日 『지지통신』 2008.4.16)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제종교자유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행한 기념연설에서 ‘북한에 가혹한 종교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김정일 주체사상 외에 다른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투옥되고, 성경책을 소지한 사람들이 처형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VOA, 2008.7.15)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09년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중국에서 강제 소환되는 탈북자 중 종교적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09.5.4)

“북한이 지난해 지하 교회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특별검색을 벌였으며 이 기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종됐고 적어도 수십명의 기독교인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처형되었다.”

(『자유아시아방송』 2010.1.22)

종교의 자유, 무엇이 두려운가?

종교의 자유는 자유의 기본입니다. 인간이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또는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는 햇빛과 맑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누구도 이를 거역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오랜 고난과 투쟁을 통해 얻은 진리이며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 세계인권선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국가들은 하나 같이 발전하고 있으나, 반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는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 남북한의 차이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절대적 가치에 반대하는 어리석은 세력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고 그러한 세력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면서 망하였습니다. 악한 세력은 왜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뻔하지 못한 나쁜 일 또는 자기 모순들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즉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감추어야 할 거짓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온 세계에 이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종교의 자유 때문에 망한 국가가 없으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공한 국가가 없었던 역사적 교훈이 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뻔뻔하면 종교의 자유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중을 통해 사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왜 두려운가? 감추어야 할 거짓이 얼마나 많기에 종교의 자유를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북한 당국에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김상현



북한인권정보센터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